



2021 YANG YOUNG HOE

스물일곱번째 이야기

교회 개척자로, 성경교사로, 선교사로!

[선교사 선교사역 ⑥ 필리핀 방주 선교센터]



BEE와의 인연을 생각해보면 치열하게 공부하던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한 주간에 이루어지는 세미나의 강도가 얼마나 뻥뻥한지! 이른 아침부터 저녁 식사 이후까지 세미나가 진행되고, 깊은 밤 새벽 한두 시까지 과제와 예습을 마치고 다시 세미나를 들어야 하는 일정들이었다. 또 젊은 학생들과 함께해야 하는 시험과 암송 구절은 얼마나 큰 부담이었던지! 2018년 인도자로 임명받을 때까지 세미나 기간에는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필리핀 방주 선교센터는 루손섬 북부 바왕 지역에 위치한다. 2009년 파송을 받아 몇 해 동안 현지인 교회와 신학교 훈련으로 섬기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고민이 깊어졌다. 6개월의 제자훈련과정을 마친 후 영혼 구원의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에 보내면 교회 개척이나 선교사역을 위해 준비되기 보다는 오히려 그 열정은 식고, 졸업장을 얻어 해외 노동자로 가려는 학생들을 보면서 절박함을 느끼고 있었다.

2014년 안식년을 보내며 방주교회 양완식 목사님(당시 집사님)의 소개로 일대일을 알게 되었고, 2015년 드디어 필리핀 방주 선교센터에서 BEE 훈련이

시작되었다. 모든 학생들이 밤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는 어려운 과정이었음에도 BEE 세미나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와 호응이 매우 뜨거웠다. 당시 20명의 평가를 보면 '매우 만족'(20%), '만족'(75%), '평균'(5%)로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참여하였다. 특히 각 과목마다 개인 교재가 주어진다는 사실은, 선교지의 형편상 책값이 비싸서 복사하거나 노트에 적어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 더불어 불필요한 논쟁이나 사설을 없앤, 단순하고 명쾌한 신학과 가르치는 중심이 아닌 토론과 적용 위주의 수업내용이 학생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



3년의 훈련 끝에 2018년 14명의 인도자가 임명되었다. 이후 필리핀 현지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한 BEE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현재 신학교는 '제자훈련학교'(BDTS, 3개월), '선교훈련학교'(BMTS, 2년)으로 진행되고 있고, 제자훈련학교에서는 DPM 과정을 가르치면서 현재는 3개 지역으로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다. 선교훈련학교는 인도자 배출을 목적으로 하여 이들이 교회개척자로, 성경교사로, 선교사로 보내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다.

신학생들과 스텝들은 공동생활을 한다. 새벽 5시에 새벽기도회로 모이고, 아침 식사 후 8시에 모여 말씀에 따라 그날의 결단을 나누고 기도한다. 오전에는 BEE 과목에 따라 공부하고, 오후에는 농장에서 노동을 하거나 마을 전도 및 심방 등의 사역을 한다. 저녁에는 다시 모여 '하루를 말씀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고 기도한 후 하루를 마감한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재생산'은 필리핀 현지에서도 중요한 사역의 초점이다. 현지인 인도자들이 다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리더들과 청년들을 가르치며, 선교지에서도 가르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

감사한 것은 13명의 현지인 인도자 가운데 선교에 헌신하는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열매는 라오스에 1년을, 두 번째는 현재 태국에서 만 2년을 선교사로 섬기고 있다. 또한 한 부부가 처음으로 BEE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 대기 중이다. 이처럼 재생산과 선교의 자극과 영감을 준 것은 카타르에서 날아와 우리에게 '교회론'과 '교회성장론'을 강의해 주었던 Sheena와 Jolly 인도자이었다. 이분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와서 가르침으로써 필리핀 사람도 선교사로, 성경교사로 보내지고 세워질 수 있다는 큰 도전을 주었다.

필리핀에 BEE 사역이 세워지도록 섬겨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매년 센터를 방문하여 가르쳐 주시고 기반을 놓아주신 양완식 목사님, 가르침의 능력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는 것임을 보여주신 정진희 권사님과 한숙영 권사님, 그리고 행정으로 섬겨주신 강부순 장로님과 BEE를 통한 비전을 보게 해주신 조문상 선교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 기도 테이블을 지켜주신 기도의 후원자들에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필리핀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기를 소망한다.

"With the Word, To the World!"



[글쓴이 김일관 선교사]

2009년부터 필리핀 바왕에 위치한 방주 선교센터에서 현지인 교회, 신학교, 지역 개발 등의 사역으로 섬기고 있다. 아내 최은주 선교사와 두 아들 서인, 서울과 현지인 스텝들과 함께 살고 있다.

[정리: 정주영 편집: 최선]



선교지  브라질



[생활양식 -카페징요(Cafezinho)]

브라질에서는 손님이 오면 환대의 의미로 커피를 대접하는데 이 커피를 카페징요(cafezinho)라고 한다. 포르투갈어로 '작은 커피'라는 의미인 카페징요(cafezinho)는 브라질 문화를 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커피이다. 물에 설탕을 넣고 중불에 설탕이 잘 녹을 때까지 끓인다. 덥힐 정도로 끓기 직전에 불을 끄고 여기에 곱게 간 커피를 넣어 잘 섞어 준 뒤 용드립이나 종이에 걸러 데미타세 잔에 담아낸다. 달콤하고 진한 블랙커피의 맛이다. 브라질 사람들은 이런 카페징요를 물을 마시듯이 하루에 10잔 이상 마시며 커피를 즐긴다.

BEE 소식

1. 2021년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와 순종함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고 이웃과도 그 친밀함을 나누는 한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17:21).”

2. 양재 11월 6일(토), 양재 BEE 기도모임 5주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의 동역자인 양재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3. 11월 6일(토) 6:30 서빙고 비전홀에서 대면으로 BEE기도모임이 시작됩니다. On, Off-Line으로 기도모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건강하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요.
4. 로마서 8장 암송! 'BEE수'에서 8주 동안 8장을 복습합니다. ()안에 알맞은 답을 적어서 BEE수 편집팀장 김옥숙 개인 카톡이나 이메일 (joyfuloksuk@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첫 번째 정답자에게 맛난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10-14절 정답을 먼저 보내주신 홍**권사님께 쿠폰을 드렸습니다! 용모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8장 15-18절]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 ()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 ()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 생각하건대 현재의 ()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과 비교할 수 없도다